

쇠퇴지역의 재생과 관광화 사이에서

윤현위*

-
- I. 서론
 - II. 벽화마을과 수암골 관련 선행연구
 - III. 수암골의 주거환경과 변화
 - IV. 수암골 도시재생의 결과와 한계
 - V. 결론
-

【국문초록】

청주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수암골은 6.25 이후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8년에 벽화마을이 조성되고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방문객들의 증가로 편의시설이 증가하는 등 관광화를 경험하였으나 수암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커뮤니티형성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암골의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저층형 공동주택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6.25와 관련된 역사자원 혹은 흔적들을 발굴하고 청주가 보유하고 있는 6.25 관련 시설들과 연계해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의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주제어 : 청주, 수암골, 도시관광, 도시재생, 빈곤의 관광화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수암골은 행정동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중앙동, 법정동으로는 수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6.25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벽화마을조성과 드라마촬영지로 유명해진 이후에는 현재에는 많은 카페들이 입지하여 청주를 대표하는 도시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수암골은 제빵왕 김탁구로 대표되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화의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쇠퇴한 지역의 명소화는 청주 수암골에서만 진행되지는 않았고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 정책에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본격 유입되면서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오래된 시가지와 마을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벽화마을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도시재생수단이다.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벽화마을로 조성해 과거에 대한 향수, 추억 등 이른바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의 이화벽화마을, 부산의 산토리나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 와도 일치한다.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다소 오래된 동네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 긍정적인 효과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미 우리는 인사동 한옥마을이 새삼 주목받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한옥 마을에 실거주하는 삼청동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

로했던 장면을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다. 수암골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들은 증가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된 측면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수암골이 벽화마을로 조성된 이후 카페촌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재생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현실적인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수암골의 형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들과 중부권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서 수암골에 변화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청주시에서 발간한 도시재생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여 수암골에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수암골은 형성된 역사가 길고 대단위의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건축물들은 노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세부적인 노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움터에서 2022년 기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암골의 과거 모습을 지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1980년에 발간된 1:5000 지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15통 일대이다. 수암골이라는 이름은 2012년에 도로명주소가 도입될 당시 수동과 우암산에서 한글자씩 따서 수암로라는 도로명이 만들어지면서 수암골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범위는 비교적 협소한데 수동에 있는 3.1공원에서부터 청주대학교에 인접한 벽화마을까지를 수암골의 범위로 본다. 수암골 벽화마을은 기존에 수암골에 조성된 주거지역이고 카페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2010년 이후에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다.



「그림1: 연구지역」

II. 벽화마을과 수암골 관련 선행연구

수암골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 문화인류학, 도시계획,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암골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증가는 수암골이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이후부터인데 이는 관광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벽화마을의 효과와 문제점을 다룬 연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한편 지역차원에서 관광화된 수암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암골을 다룬 연구들 중에서 물리적인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다

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김낙준·김태영(2002)의 연구는 그 가치가 크다. 청주의 수동지구는 수암골과 공간적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수동지구의 특성을 보면 수동지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령 인구비율과 단기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지구의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림(2015)은 수암골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수암골의 환경오염과 사생활침해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그동안의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김주영(2015)은 수암골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진행에 관심 두었는데 마을미술과 관련된 기획자, 활동가 그리고 마을주민의 상호작용은 부분적으로 존재했으나 다소의 시각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낭만적이지만 가난하지 않은 달동네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광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빈곤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박구원(2020)은 수암골의 피난민촌-드라마촬영지-도시관광지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면서 수암골의 관광화는 장소의 특성, 관광수요, 지자체의 유기적인 결합의 결과로 보았다. 정윤수(2021)는 수암골 벽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벽화마을은 가난한 삶의 기억을 낭만화하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의 부재로 지적하였다. 네모토 마사쓰쿠(2012)는 수암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수암골의 주민들은 고용창출보다는 주민들간의 교류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원·이재규·이현성(2021)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벽화 마을조성 사업은 다소 무분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부실관리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벽화마을의 성격이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의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능동적인 사업참여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벽화마을은 아니지만 김유선·이희정(2022)은 강동구에서 진행된 강풀만화거리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강풀의 만화거리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반면에 재개발사업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았다. 특히 마을 자체를 활용한 사업들은 건물의 신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정하나(2014)는 이화벽화마을을 사례로 주민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종로구 이화동의 벽화마을의 경우 주민들은 관광객들에 의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 차량운행,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으나 부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오동훈·박은비(2022)는 벽화마을의 순기능에 주목하였는데 이화동 벽화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통해서 장소성 구축, 주민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성공요인은 각 요인들의 파트너십의 구축으로 보았다.

김동현(2015)은 벽화문화마을의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벽화마을이 조성된 지역들은 평균적으로 지가의 상승을 가져왔으나 주민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는 조형물과 벽화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경관개선사업의 측면에서도 주민편의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Ⅲ. 수암골의 주거환경과 변화

1. 수암골의 형성과 주거환경

수암골이 있는 수동은 원래 교서리인데 향교 서쪽에 있다는 뜻이다.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교서리가 되었고 1920년에는 일본식 지명인 수정이 되었다가 지금의 수동이 된 것이다. 수암골은 6.25 전쟁 이후 국군을 따라 남하한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정연정(2016)에 따르면 제23육군병원이 지금의 수동 3.1공원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1.4후퇴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고 이후에 지금의 수암골에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과거 이 일대를 수암골이 아닌 평화촌이나 수용소길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래 수암골은 보리밭이었는데 마을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청주시에서 목재, 석가래, 흙벽돌을 지원해줘 한 가구당 20평 규모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이은경, 2009).

1970년대 이후 수암골은 청주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발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으며 2005년에 이르러서야 주거환경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02년에 환경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2006년에 걸쳐 소방도로,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들이 수암골에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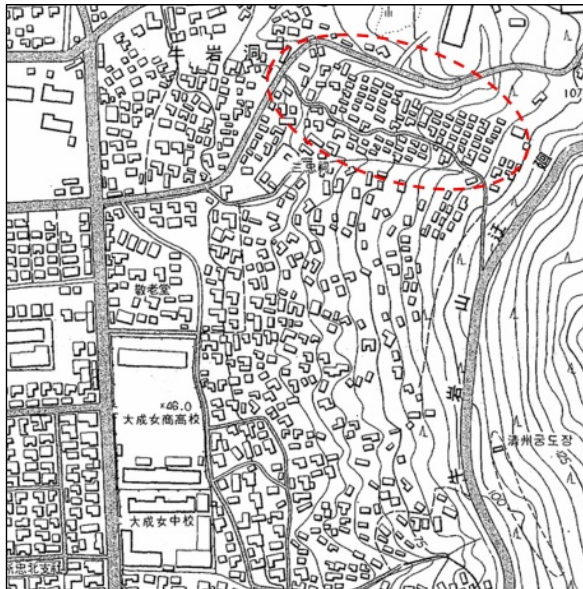
네이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암골 벽화마을의 건축물들을 모두 70개다. 70개의 건축물은 모두 도로명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과거에 사용했던 지번주소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 건축물은 총 34개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에 합필하였거나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의 건축물이 우리나라의 건축물 인·허가와 등록에 관한 제도들이 정비되기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누락의 가능

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0㎡이하	20-40㎡	40-60㎡	60㎡ 이상	총합계
건축면적	3 (8.8)	22 (64.7)	6 (17.6)	3 (8.8)	34 (100)
용도	단독주택			기타	총합계
		32 (94.1)		2 (5.9)	34 (100)
지붕구조	콘크리트	기와	슬레이트	기타	총합계
	7 (20.6)	19 (55.9)	5 (14.7)	3 (8.8)	34 (100)
건축연한	1940-1950	1960-1970	1980-1990	2000년 이후	총합계
	23 (67.6)	2 (5.9)	5 (14.7)	4 (11.8)	34 (100)

자료: 세움터 홈페이지

「표 1:수암골 건축물들의 물리적 특성」



「그림 2: 1984년 수암골 일대」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벽화마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용도, 지붕구조, 건축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용도를 살펴보면 2개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독주택이다. 수암골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단층이다. 실제로 벽화마을에는 소수의 편의시설이나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이다. 이 주택들의 면적은 대부분 20~40㎡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형태를 보인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택들도 주택의 크기가 크지 않다. 34개의 건축물 중에서 100㎡를 넘는 주택은 1개 뿐이었다.

지붕구조는 기와가 절반이상이었다. 현지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기와와 슬레이트로 된 지붕들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슬레이트로 된 지붕 이외에도 벽체가 흙으로 된 주택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수암골 건축물들의 건축연한을 살펴보면 1940~196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한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건축된 시기를 봤을 때 그 노후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은 거의 없었다.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3: 슬레이트 지붕구조」

낮은 담장, 판잣집 그리고 좁은 골목으로 대표되는 벽화마을 일대에는 그동안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4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축척 1:5000의 청주지도를 살펴보면 수암골 일대의 전체 필지의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암골 내의 도로가 일부 추가 되긴 했으나 건축물의 배열 등을 봤을 때 과거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2. 수암골의 관광화

수암골이 관광지로서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수암골을 벽화마을로 조성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청주 민예충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추억의 골목여행이란 주제로 수암골에는 다양한 벽화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벽화마을, 통영의 통피랑 등의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주목받았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근린 곳곳에서는 벽화마을이 확산되었다.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4: 드라마 김탁구의 흔적」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5: 수암골 입구의 부탁해요 캡틴 촬영지 조형물」

수암골의 관광화는 수암골 일대가 TV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가속화되었다. 2009년 SBS에서 방영된 ‘카인과 아벨’(2009. 2. ~ 2009. 4.)이 수암골에서 촬영이 진행되었고 인기리에 방영된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2010. 6. ~ 2010. 9.) 2011년 KBS 드라마 ‘영광의 재인’(2011. 10. ~ 2011. 12.)에 수암골이 등장하였다. 특히 제빵왕 김탁구의 경우 높은 시청율과 인기를 거두었는데 이로 인해 수암골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SBS의 ‘부탁해요 캡틴’의 촬영이 진행되었다.

박구원(2020)에 따르면 드라마 촬영 이후 2009년 주말평균에는 300~500명의 방문객이 2010년에는 4,000~5,000명 정도 2012년의 공식 방문객수는 56,252명이다.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관광안내소, 전망대 등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정비되었다. 제빵왕 김탁구는 방영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팔뚝제빵집이 마을 입구에서 현재에도 운영되며 빵과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당시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의 성공에 따라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된 장소에 관심이

몰리면서 수암골은 청주의 달동네 혹은 낙후된 지역에서 관광적 지명도를 가진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관광지의 성격이 아니었던 수암골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부작용도 경험하게 된다. 많은 방문객들이 등장하면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생 활침해, 쓰레기 증가, 소음증가 등의 불편이 증가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되는 상황을 반기지만은 않았다.

2011년 9월 영광의 제인 촬영 당시 마을 주민들은 드라마 촬영을 반대하였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마을주민들은 화장실 설치, 방범용 CCTV설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였다. 청주시와 충북도에서는 수암골을 드라마 촬영지 활용하기 위해서 3억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후에 청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6: 수암골 카페촌 전경」

드라마의 성공에 따른 수암골의 인지도 상승은 추가적인 상업시설의 유입을 증가시켰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카페이다. 2010년에 수암골에 처음으로 카페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은 수암골

카페촌으로 불릴만큼 30여개의 카페가 성업중에 있다. 청주 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밀집해 있는 대규모의 카페들은 그 자체만으로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수암골은 벽화마을+카페촌이라는 확대된 관광지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수암골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관광지에도 등장하였고 각종 언론에서도 청주를 대표하는 도시관광지로 소개되었다. 카페촌의 형성은 벽화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2015년 11월 벽화마을 내에 ‘하늘다방’이 오픈하였다. 이는 외지인이 아닌 수암골 주민에 의한 첫 번째 카페였다. 이후 2016년에는 전통찻집 다원이 문을 열었다.

카페의 증가는 수암골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켰는데 수암골은 벽화마을에서 수암골삼거리까지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카페가 들어서면서 남쪽방향인 청주시 상당청소년문화집, 청주상당시니어클럽까지 카페촌은 더 확장되었다. 수암골의 카페촌이 확대되고 많은 방문객들이 증가하자 카페 이외에도 식당과 상점들이 추가적으로 입지하였다. <그림7>은 카페촌에 있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1980년대 유명 만화영화인 ‘로봇대권V’를 테마로 한다. 김청기 감독의 작품에 관한 전시, 피규어와 프라모델을 판매하고 있어 카페거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구원(2020)의 지적처럼 수암골은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청주 도시관광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관광 관련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수암골 힐링로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한류명품 드라마 거리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수암골의 관광지화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데 수암골 일대는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암골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근린재생형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30 청주도시재생전략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재는 사업

의 유형 이름이 ‘우리 동네 살리기’로 변경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이란 이름으로 2024년까지 지역의 생활기반을 강화, 경제공동체 구축, 거주환경개선을 목표로 한다.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7: 김청기 감독 기념관」

VI. 수암골 도시재생의 결과와 한계

1. 수암골에서 진행된 활동들

수암골의 관광화는 마을의 주민들과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벽화마을 조성의 시작은 민예총 충북지부와 같이 외부인들의 작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수암골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였다. 물론 수암골에는 이전에도 마을공동체가 존재했는데 정연정(2016)에 따르면 1976년부터 통우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회비를 내며 활동을 하고 있었고, 2000년 초반에는 수암골 노인회가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부녀회가 조직되어 마을 청소와 마을행사를 도왔으며 2013년부터는 수암골의 주택 혹은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수암골 번영회가 조직되어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2011년에는 수암골지역사회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수암골 생활문화공동체인 ‘마실’이 만들어졌다. 마실은 지식경제부의 후원을 받기도 했고 이를 통해 수암골 솜씨, 체험판매장, 수암골 밥상 등을 운영하였다. 마실의 출범 이후 2011년에는 수암골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축제가 기획되기도 했다. 2013년에도 ‘수암골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1970~198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청주도시재생대학 2기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벽화마을과 카페촌으로 구성된 수암골은 그동안 원주민과 외지인이라는 이원적인 구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둘이 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바탕으로 벽화마을의 주민들과 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축제를 진행하였다.

2.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암골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관광지로서 인지도가 높아진지도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처음 벽화마을과는 별개로 루프탑 시설에서 청주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의 카페가 들어서면서 드라마촬영지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인지도를 갖춘 관광지가 된 양상을 보인다. 벽화마을은 벽화마을대로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을 늘려가고 있고 마을의 입구에는 드라마가 촬영되었다는 조형물과 관광 안내소들이 방문객들

을 맞이하고 있다.

수암골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주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 측면에서만 수암골을 주목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실제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환경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나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들이 가치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안은 수암골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아닐까 싶다.

2005년에 시행된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후에 수암골에서는 큰 주거환경개선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간에 담장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의 개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암골에는 아직도 흙벽으로 된 집들과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 집들이 즐비하다. 제3자에게 벽화마을은 레트로 감성의 옛 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아파트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재고에서 절반이상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오래되고 낡은 주택은 어쩌면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감상의 대상은 아니다.

벽화마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벽에다 벽화가 그려진다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수암골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벽화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벽화만 남은 상황이 문제이다. 벽화가 칠해지면서 수암동이 보유하고 낡음과 쇠퇴가 레트로와 낭만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주민들의 실생활은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면서 정작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림8: 수암골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들」

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활성화정책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보강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남아 있는 빈집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사업의 주체나 내용이 바뀌더라도 항상 언급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주민의 고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암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된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다. 드라마 배경으로서 이 지역의 장소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퇴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지속적인 도시관광의 요소를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형성된 역사를 발굴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암골이 만들어진 형성과정을 3.1공원부터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수암골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지명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되겠다.

청주에는 6.25 당시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의 일부

가 아직 남아 있다. 수암골은 6.25가 남긴 전쟁경관으로 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알박스(Halbwachs)가 제시한 개념인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겠다. 수암골은 원도심에 비해서 경사도 있고 향후에도 재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지역이다. 청주대학교와 인접해 있지만 대학의 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저층의 임대아파트나 저층의 공동주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1950~1960년대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보존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는 전면철거 재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인 상태가 양호한 주택들을 보존한다면 수암골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수암골 벽화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면 풍물놀이처럼 마을활동의 일부를 담은 그림도 있지만 <그림8>과 같이 수암골과 전혀 무관한 그림들도 상당수 된다. 벽화 내용의 전체를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벽화가 계속 보수 확장된다면 수암골 주민들의 생활이나 공동체를 주제로한 내용들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출처: 필자 직접 촬영(2022. 9. 20.)

「그림 9: 허물어진 집의 벽화」

<그림9>에 나오는 주택은 공가로 보이는 수암골에 있는 주택의 모습이다. 주택의 입면에는 벽화가 칠해져 있지만 흙벽으로 된 집은 창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수암골의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기본적인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광자원도 소멸될 수 있다.

IV. 결론

청주의 마지막 산동네라고 불리는 수암골은 6.25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내려온 사람들은 도심부에 인접한 구릉성 산지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에서 6.25와 산업화시기 달동네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청주의 마지막 달동네는 드라마 촬영지와 카페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3대 벽화마을이 되었다. 유명한 벽화마을이 되면서 수암골은 청주의 도시관광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수암골의 주택들은 벽화가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물리적인 주거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아 그동안의 정책과 사업들에서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주민들의 참여를 유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주거환경의 개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LH에서 시행해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의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철거민을 포함한 이 과정은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도시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민간자본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주택의 노후도와 근린의 쇠퇴도와 무관하게 지구의 사업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은 노후도가 크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외면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암골이 과거 1970~19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공부분에서도 이러한 작은 규모의 근린은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소외의 결과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과정은 다소 역설적이며 관광지가 된 이후도 주민들은 큰 수혜를 보지 못하였다. 드라마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지역에 30곳도 넘는 카페가 들어와서 성업 중인데 결과적으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외지인들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암골이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을 통한 저층 공동주택을 건설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유도하고 벽화마을 내에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주택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담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6.25 전쟁과 관련해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이 지금은 다소 간과되어 있는데 청주가 보유하고 있는 6.25 관련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청주지역에 남아 있는 6.25 관련 시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투고일: 2022.11.13, 심사개시일: 2022.11.15,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김낙준·김태영, 2002, 「청주 수동지구의 주거환경개선실태 및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논문집(계획계), 22.
- 김동현, 2015, 「마을미술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 분석: 감천문화마을, 화순성안마을, 신세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이재규·이현성, 2021,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본 벽화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13.
- 김미숙, 2014, 「한류문화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청주 수동 수암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5.
- 김유정·이희정, 2022, 「근거이론을 활용한 장소자산의 주민의식 연구: 서울 강동구 강필만화거리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9.
- 김주영, 2015, 「낭만과 현실사이: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달동네 빈곤의 재현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1.
- 네모토 마사쓰쿠, 2012, 「도시저개발 지역 주민요구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의 적용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축 가능성: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
- 오동훈·박은비, 2022, 「벽화마을의 순기능 제고방안 연구: 이화동 벽화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5.
- 이유임, 2015,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문화활성화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9, 「청주의 마지막 달동네 수암골의 세상살이」, 충북학, 11.
- 박구원, 2020, 「생활형 관광지 수암골 벽화마을의 변화적 특성 연구: 관광지 발전요건에 관한 고찰」, 동북아관광학회, 16.
- 정연정, 2016, 『수암골 문화관광 활성화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충북연구원.

정운수, 2021,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연구: 마을벽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하나, 2014, 「벽화마을 사업이 거주민 지역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Between the Regeneration and Tourism of Declined Area: a Case of the Suamgol in Cheongju

Yoon, Hyun wi

Suamgol, located in Sudong-dong, Sangdang-gu, Cheongju, was formed by refugees after June 25, and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until the 2000s, but was transformed into an area visited by many visitors when a mural village was created and introduced as a filming location for dramas in 2008. Although tourism has been experienced, such as an increase in convenience facilities due to an increase in visitors,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residents living in Suamgol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In futu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esidents along with projects to form communities for residents.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Suamgol,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entered on public-led low-rise apartments should be improved, and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set to be used as a memory space to discover historicity related to 6.25 and connect facilities owned by Cheongju.

Keywords: Cheongju, Suamgol, Urban tourism, Urban regeneration, poverty of tourism.